

#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탄력

# ‘익산형 뉴딜’ 사업발굴 본격

### ‘강소특구’ 지정 쾌거...지역 혁신기관 숨은 노력 한몫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대감

군산시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중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과기정통부의 제34차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군산시는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혁신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육성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최대 지정 개수를 17개로 한정하고 수도권외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가 원칙이 될 계획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R&D 자금지원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융복합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도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군산시는 대기업 공장의 잇단 가동 중단과 폐쇄로 어려움을 겪자 R&D 기반의 강소특구 지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발 빠르게 T/F팀을 구성하여 대응노력을 개발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한 발판을 착실하게 준비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인 ‘강소특구팀’을 신설하는 한편 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원 특례 조항에 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R&D

기반의 제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 등이 특구 지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특구 지정 성과에는 산업생태계 다변화를 위해 특구 지정에 힘을 실은 신영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군산대학교를 비롯하여 플라즈마 기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지역의 혁신기관의 숨은 노력이 함께 했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역 거점대학인 군산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군산국가산단 새만금산단 일대 1.84㎢ 배후공간에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SEDA)’를 조성할 예정이다.

R&D 융합 지구인 군산대학교와 새만금 캠퍼스 일원은 창업보육, 기술창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지구이며, 사업화 지원지구인 군산국가산단은 시험·인증·실증을 통해 공공 기술 사업화를 창출하고, 성과확산지

구인 새만금산단으로 생산 및 연구성과가 촉진되도록 지구별 기능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군산은 전기차 분야의 우수 기술 역량과 국내 최고 수준의 대규모 실증연구단지 기업 유치에 용이한 장기 임대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의 육성(개발·시험·양산)의 최적의 장소이다.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가 특화분야인 군산 강소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군산형 일자리사업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중심의 군산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또한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취임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혁신주체와 장시간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은 것이 ‘강소특구 지정 추진’이다. 모처럼 군산시민에게 찾아온 희망의 메시지가 헛되지 않도록 특구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과학기술기반의 혁신성장을 통해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난 27일 열린 과기정통부의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군산시는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 정책 전문가·공무원 참여, 내일 현장중심 릴레이회의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 익산형 뉴딜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역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해 운영하던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을 ‘익산형 뉴딜’ 대응 체계로 전환해 공무원들의 한계를 넘어선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부와 △문화관광부와 △농림부와 △지역개발·인프라부와 등으로 구성된 기존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에 이어 △농생명·바이오 전문가 회의, 익산시 소재 R&D기관 협의체 회의(가칭), 익산형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세미나 등을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익산형 뉴딜사업 발굴에는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전북도 출연기관(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등), 도내 산업지원 공공기관, 관련부

아 대학교수, 도내 민간부문 에너지기업 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인력으로 구성됐다.

시는 익산형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60여명과 기획예산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 정책개발담당관 등 30여개 부서의 공무원이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릴레이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R&D기관 협의체, 익산형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세미나 등 각 분과 별로 회의를 개최해 신규사업 발굴 후 세부사업과 사업 타당성 등을 구체화하여 국책사업화를 위한 예산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업발굴 초기부터 전문가그룹과 사업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 대응해 익산시민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사업발굴을 통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잠재자원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발전을 일궈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고용위기 지원센터, 일자리 매칭데이 성황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8일부터 이틀동안 군산에이브호텔에서 관내 4개 기업과 구직자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맞춤형 일자리 매칭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촉된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자들이 사전에 이력서를 제출한 기

업을 방문하여 1:1 면접을 가졌으며, 사전준비가 부족한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자 증명사진 무료촬영과 입사지원서 컨설팅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지원자마다 면접시간을 달리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석기 센터장은 “제조 및 의료분야 100여명 채용에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청년뜰 ‘손잡다’

###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등

군산시가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군산시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사회적경제 활동 육성프로그램과 청년 창업실무 프로그램을 연계한 물론, 공동연구를 통해 군산시 사회적경제 및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진행 △공동연구 및 전문교육 지원 △지역 사회적경제 활동가(기업가) 육성지원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적자원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컨설팅·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올해 5월 개소 후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원하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군산=한경봉 기자

## 수출 멜론 생산기반 조성·현장컨설팅 지원

### 익산시, 품질향상 도모

익산 멜론이 활발한 해외수출로 농가 효과 작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 멜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 및 현장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8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익산 네트멜론은 3~5월 정식 후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출하하는 작물로 올해

는 5월 하순 4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7톤이 홍콩으로 수출됐다. 익산 멜론은 매년 K멜론 브랜드로 280톤 이상이 홍콩과 대만,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올해 시는 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8천만원을 투입해 우량품종을 지원하였다. 그 일환으로 28일 금마면 윤석부 농가에서 멜론농가 3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멜론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농가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멜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병해 역제를 위하여 퇴비차(복합비생물)과 클로랄라 배양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 지역 소식통

###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익산 시민사진관 지원

익산 시민사진관(공동대표 황성배,이현섭)이 지역 다문화가정에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사진관은 28일 시청을 방문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사진 무료촬영권 100장(2,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진관은 다음 달부터 매월 20가정씩 선발해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가족사진 촬영을 원하는 가정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한 후 순서에 따라 사진관에 방문하여 원하는 컨셉으로 사진을 찍으면 된다.

시민사진관 황성배 대표는 “요즘같이 힘든 이 시기에 먼 타국에서 와 가정을 이룬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힘내시라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예쁘고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 군산시, 새롭게 개설 호응

군산시가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있다.

군산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 홍보 플랫폼인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unsansec.or.kr>)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군산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자료실 등 5개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각종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되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최근 전국의 사회적경제 동향을 소개하고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지정 절차와 기업 간 교류 및 사진·동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메뉴도 구성되어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